

새해, 새 질서의 환경보호를...



朴昌根

〈本会고문·(社)環境教育會회장〉

대기오염이라고 하면, 보통 「런던형 스모그」와 「L.A형 스모그」를 말한다. 그만큼 「런던 스모그」와 「L.A스모그」는 유명하다. 그런데 그 유명한 「L.A스모그」의 대명사 로스앤젤레스시가 서울보다 공기가 맑고 깨끗하다.

12월, 겨울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을(10월경) 날씨의 L.A는 시각적으로나 피부접촉으로나 분명히 서울보다 쾌적하다. 거리는 깨끗하고(물론, 뒷골목은 우리네와 같은 형편이지만) 차도변엔 잔디와 꽃밭이 이어지고, 정말 산소를 만드는 가로수들이 즐비하다. 그래서 우리의 서울보다 차가 많아도 공기가 맑고, 먼지가 없는 모양이다. 아니, 어쩌면 그런 외형적인 조건보다는 더 근본적인 내형적 조건이 L.A의 공기를 맑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아메리카의 정신이라고 할까? 그런 힘이 지배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본다. 미국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그래서 질서가 있다. 이 질서가 오늘의 미국 환경을 지켜주는 정신인지도 모른다. 그 많은 차들이 컴퓨터로 제어된 기계와 같이 질서 속에 운행되고 있다. 한 예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빙거 지나갈 때, 교통경찰관이 없는데도 미리 약속이나 한듯, 서로 양보하며 순서대로 교차로를 통과한다. 러시아워의 6~8차선의 Free Way의 경우도, 밀리면서 서들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차량 열차와 같이 이어나간다. Free Way의 왼쪽 끝선은 버스와 3인 이상이 승차한 차량만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과 자동차로서의 교통수단을 충분히 우선하고 있다.

이런 모든 질서의식이, 오염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오늘의 L.A를 맑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거리의 곳곳엔 잘 가꾼 잔디밭과 화단이 즐비하다. 우리네와 같이 관이 개입하여, 이걸 심이라 저걸 가꿔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 잔디밭이 좋아서, 꽃이 좋아서 가꿔 놓은, Green Field가 오염을 흡수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정직하고 질서를 사랑하는 국민에 의해 환경은 유지되고 있다. 우리의 오염을 흔히 산업화의 산물로 이야기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인식이 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 L.A에서 생각하는 조국은 성급하고, 무질서하다 그래서 더욱 오염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오염을 줄이는 최선, 최대의 길은 오직 질서를 찾는 자세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에 여유를 주는 질서, 질서로 찾아지는 여유... 그런것들이 환경을 지켜주고 보호한다.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정말, 이 해에는 지난 해의 암울한 혼동이 사라지고 새 얼굴, 새 마음의 해이기를 바란다. 올림픽도 치뤄야 하고, 새 정부에 의한 새 시대도 시작한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품위있는 환경을 위해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할 때이다.

... 너무 늦기 전에...

(1988년 1월 L.A에서)